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7. 10. 24.(화) / 총 2매
담당 부서	건설안전과	담당자	• 건설안전과 과장 이정기, 사무관 허원석, 현기창, 주무관 최영록 ☎ (044)201-3573, 3574, 3584, 3576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국토교통부, 용인 물류센터 옹벽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·운영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0월 23일 용인시 처인구 물류센터 신축현장(민간공사 현장)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(사망 1명 포함 총 10명 사상)와 관련하여,
 -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“건설사고조사위원회”를 구성·운영한다고 밝혔다.
 - * “건설사고조사위원회”는 3명 이상 사망, 1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붕괴나 전도(顛倒)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한 중대건설사고에 대하여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부·발주청·지자체가 운영(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)
- 위원회는 건국대 신종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·학·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여 10.25부터 12.29까지 약 2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,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.
 - * 10.25(수) 15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 실시 예정(현장)
- 근본적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*하였으며,
 - * 토질기초 2명, 건축구조 2명, 시공 2명, 토목구조 2명, 사업관리 2명

- 각 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,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·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,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이성해 기술안전정책관은 “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,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,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”이라고 말하며,
- “아울러, 지난 8월 17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」에서도 밝혔듯이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허원석 사무관(☎ 044-201-35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